



www.at.or.kr

미국 농식품 수출품목 소매가격조사 6월



김



음료류



주류



제과류



면류



소스류



기타 가공식품



신선식품



6월 품목 및 원산지별 소매 가격 분석 - 미국



1. 김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2. 음료류 (커피)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커피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3. 면류 (라면)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라면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4. 주류 (맥주)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맥주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5. 제과류 (스낵류)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스낵류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6. 소스류 (장류)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장류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 미국 달러의 경우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6월 29일자 기준으로 작성, 1달러 = 1,140.30 원

1~6월 월별 소매 가격 변동 추이 분석 - 미국



1. 김



2. 음료류(커피)



3. 면류(라면)



4. 주류(맥주)



5. 제과류(스낵류)



6. 소스류(장류)



※ 미국 달러의 경우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6월 29일자 기준으로 작성. 1달러 = 1,140.30 원

기타 가공식품

수요 증가 ▲ “ 건강에 좋은 보릿가루, 눈으로 읽고 입으로 맛보고 ”

건강식품·식재료, 천연·유기농 식품 전문 유통업체인 Natural Foods, LLC의 구매부 담당자 Ms. Amber와의 인터뷰 결과, 금번 6월에 보릿가루의 판매율이 평균보다 위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리 자체적으로도 건강에 좋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고,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 내 보릿가루의 장점을 설명한 논문 기사물에 대해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서 판매율이 상승한 것으로 설명했다. 현지 제조업체를 통해 제품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어 취급 품목 외 유명 브랜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많이 없지만 보릿가루의 인지도와 효능·장점에 대해서는 매우 해박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해당 기업의 주요 고객 유인책이라 덧붙여 설명했다.



[보릿가루]

수요 감소 ▼ “ 삼계탕 관련 키워드는 #노년층 #건강식 ”

미국 내 가공식품을 주로 수입·유통하는 AAF Import Inc.의 구매부 Mr. Billy에 따르면, 삼계탕 제품의 판매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로 아시아 식료품을 태국과 필리핀에서 수입 진행하며, 한국산 제품도 한국에서 직접 수입하기보다 태국과 필리핀 내 유통되는 한국 상품을 소량씩 조달받고 있다 답변했다. 그중 삼계탕 제품으로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 없으며, 미국 현지에서도 꾸준한 수요를 보이는 제품이 아니라 설명하며, 특히 노년층의 구매율이 두드러지는 삼계탕은 소비자의 구매층·구매량도 한정적임을 덧붙여 전달했다. 이는 삼계탕이 건강과 깊은 관련을 보이는 제품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삼계탕]

신선식품

수요 감소 ▼ “ 6월 ~ 9월, 운송 비수기로 시간적·지역적 제한 많아 ”

신선 버섯 및 신선 버섯 배양용 키트를 주력으로 유통 중인 J.W. Jung Seed Company의 담당자 Ms. Miri의 인터뷰를 통해 양송이 계열의 버섯인 Crimini의 수요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6월 ~ 9월은 더운 날씨로 인해 운송 및 유통에 시간적·지역적 제한이 많아지는 운송 비수기라 밝혔다. 원래 양송이 계열 중 White button의 흰 양송이버섯의 판매율이 가장 높고 Crimini가 비인기 제품이기 때문에 날씨 탓에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하자 가장 큰 폭으로 Crimini 버섯의 수요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때는 버섯 품질을 위해 지역적 운송·유통 제한도 강해지는 시기로 미국 내 몇몇의 주(州)로는 운송 중단도 감행한다고 전달했다.



[양송이 계열의 Crimini]

 주류

수요 증가 ▲ “ 공급보다 수요가 높은 한국 막걸리 ”

미국에서 한국 막걸리 외 각종 수입 주류를 유통 중인 Leiser's Liquors의 대표 Mr. Erick Leiser는 자사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미국 뉴욕 내 막걸리 수요가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는 막걸리의 경우 보통 여름에 판매량이 상승하는 제품으로 아시아인들이 많이 찾는 제품이라 전했다. 또한 수요가 공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이지만 제품 구매량이나 라인을 추가하기 비교적 까다로운 제품이라 귀땀했다. 이는 뉴욕의 경우 일반 주류 유통업체들은 주류를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대형업체 3곳에서 취급하는 제품만을 구매 및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이 취급하는 막걸리 제품만 제한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고객들 역시 취급 품목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막걸리]